

- 008 산수의 기초 고트롭 프레게 | 박준용 · 최원배 옮김
- 009 소유란 무엇인가 프루동 | 이용재 옮김
- 010 종교의 자연사 데이비드 흄 | 이태하 옮김
- 011 창조적 진화 앙리 베르그손 | 황수영 옮김
- 012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탈레스 외 | 김인곤 외 옮김
- 013 014 015 심리학의 원리 1 · 2 · 3 윌리엄 제임스 | 정양은 옮김
- 016 윤리형이상학 정초 임마누엘 칸트 | 백중현 옮김
- 017 물질과 기억 앙리 베르그손 | 박중현 옮김
- 018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막스 셸러 | 조정옥 옮김
- 019 020 순수이성비판 1 · 2 임마누엘 칸트 | 백중현 옮김
- 021 비극의 탄생 프리드리히 니체 | 박찬국 옮김
- 022 실용주의 윌리엄 제임스 | 정해창 편역
- 023 훔덜린 시의 해명 마르틴 하이데거 | 신상희 옮김
- 024 판단력비판 임마누엘 칸트 | 백중현 옮김
- 025 정신과학에서 역사적 세계의 건립 빌헬름 딜타이 | 김창래 옮김
- 026 새로운 시각 이론에 관한 시론 조지 버클리 | 이재영 옮김
- 027 형이상학 논고 빌헬름 라이프니츠 | 윤선구 옮김
- 028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언어 에른스트 카시러 | 박찬국 옮김
- 029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루크레티우스 | 강대진 옮김
- 030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 쇼펜하우어 | 김미영 옮김
- 031 윤리형이상학 임마누엘 칸트 | 백중현 옮김
- 032 형이상학 서설 임마누엘 칸트 | 백중현 옮김
- 033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제러미 벤담 | 강준호 옮김
- 034 영원한 평화 임마누엘 칸트 | 백중현 옮김
- 035 안티크리스트 프리드리히 니체 | 박찬국 옮김
- 036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신화적 사유 에른스트 카시러 | 박찬국 옮김
- 037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임마누엘 칸트 | 백중현 옮김
- 038 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서신 빌헬름 라이프니츠 · 앙투안 아르노 | 이상명 옮김
- 039 우상의 황혼 프리드리히 니체 | 박찬국 옮김
- 040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앙리 베르그손 | 박중현 옮김
- 041 철학적 탐구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 이승중 옮김
- 042 교육학 임마누엘 칸트 | 백중현 옮김
- 043 044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의 1 · 2 알렉시 드 토크빌 | 이용재 옮김
- 045 윤리학의 방법 헨리 시지윅 | 강준호 옮김
- 046 선악의 저편 프리드리히 니체 | 박찬국 옮김
- 047 사물과 공간 에드문트 후설 | 김태희 옮김
- 048 스피노자 서간집 스피노자 | 이근세 옮김
- 049 성모 마리아 찬가 알폰소 현왕 | 백승욱 옮김

Cantigas de Santa María

송고한 가치와 비정한 현실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한 편의 신앙적 · 예술적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고전 텍스트이다. …… 『성모 마리아 찬가』는 주제와 문체의 관점에서 11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성모 마리아의 '기적miracle' 이야기의 맥을 잇고 있다. 산문 혹은 연극 형태로 전승된 이 문학 조류는 초창기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었으나 1200년 이후 스페인에서는 곤살로 데 베르세오와 같은 가톨릭 사제에 의하여 중세 스페인어 14음절 4행시로 재구성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당시 유럽 지역에 산재했을 법한 다양한 쟁점과 문제의식과 연관된다. 모든 작품에 나오는 핵심 인물인 성모 마리아는 사람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일부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서정 가요를 제외한다면 그 대부분의 노래들은 당시 스페인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 살았을 법한 사실적인 인물들이 성모 마리아의 극적인 도움으로 불행에서 벗어나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는다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졌다. 스페인인 석학 메넨데스 이 펠라이요는 『성모 마리아 찬가』를 두고 '성경을 심미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아울러 알폰소 현왕의 13세기 톨레도본 및 엘에스코리알본에 여실히 나타나듯이 화사한 세밀화와 다정다감한 음률을 제시한 악보가 기적 이야기 흐름과 조화를 맺어 텍스트 내용 전체를 승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서구 중세 시대에 실험된 참신한 복합 예술이자 동시에 최고의 치유 문학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 「서문」에서

www.acanet.co.kr



값 33,000원



대우고전총서
049

성모
마리아
찬가

알폰소
현왕
찬가
백승욱
옮김

아카넷



대우고전총서
Daewoo Classical Library
049

성모 마리아 찬가

Cantigas de Santa María

알폰소 현왕 | 백승욱 옮김



알폰소 현왕(Alfonso X de Castilla el Sabio, 1221-1284)

스페인 국왕(재위 1252-1284)이었다. 후대에 성자로 평가 받는 페르난도 3세 Fernando III와 독일계 베이카리체Beatriz de Suabia 사이에서 태어났다. 모계의 유럽 왕실 서열에 따라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후보에 올랐으나 외교적 역량의 한계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말년에는 귀족들의 봉기와 왕위계승을 둘러싼 둘째 왕자 산초의 반란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한편, 사회문화적 · 교육적 관점에서 스페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 '현왕'으로 칭송을 받아왔다. 화폐 및 경제 개혁, 지방법 통합, 역사관 쇄신 등을 통해 '새로운 스페인'을 건설하고자 했다. 무슬림과 유대인에 대한 포용정책을 썼으며 톨레도 번역가학교를 통해 많은 동양 문헌들을 중세 스페인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문학, 과학, 역사, 법학 분야의 핵심적인 문헌들을, 기존의 라틴어가 아닌 스페인 사람들의 현재 일상 구어체로 기록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이 바로 오늘날까지 알폰소 10세가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업적으로 『칠부 법전』, 『일반 역사』, 『스페인 역사』, 『성모 마리아 찬가』, 『천문학서』, 『놀이 에 관한 책』 등이 있으며, 이 필사본들은 현재 엘에스코리알 궁전 도서관, 마드리드 국립도서관, 바티칸 도서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대우고전총서는 대우재단과 한국학술협의회, 아카넷이 공동으로 펼치는 고전번역사업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당대의 화두, 미래에 대한 조망을 담고 있는 고전의 출간을 통해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